

사회관계망과 한국 유학 연구*

-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구축에 유의하여

박 학 래(군산대 철학과)

한글 요약

한국 유학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 중 최근 연구자들의 이목을 끄는 연구방법론 중 하나는 ‘사회관계망 이론 및 분석’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이 연구방법론은 관계적 인간관(relational concept of man)에 기초한다. 이 방법론에서 개인은 사회관계망 속에서 일련의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이때의 관계망은 개인의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고 유지되며, 개인들의 선택에 따라 형성된 관계망은 다시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것에 기초하여 개인의 속성과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 연구방법론은 기존의 한국 유학 연구에서 초보적인 형태로 적용되어 왔지만, 자료의 충분한 집적과 분석, 관계망의 구조 및 이에 따른 개인의 속성 간의 관계 등의식적으로 이 연구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결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사회관계망과 연관된 기존의 한국 유학 연구에 대한 경향에 유의하면서 사회과학의 일반화된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사회관계망 이론 및 분석 방법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국 유학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에서 이 방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 유학 연구에서 이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과 그 성과가 어떠한 수 있을가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전제에는 기본적으로 한국 유학의 특정한 학자나 학파의 유학사상은 그 형성과 전개가 고립 분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정 사상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지든 아니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든 한 인물이나 학파의 사상 형성과 전개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인식 하에서 이 연구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아울러 이 검토는 최근 구축되고 있는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수집 연구’에 유의하였음을 밝힌다.

주제어 : 한국 유학 연구, 사회관계망 연구, 근현대 유학, 연구방법론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학기초자료사업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1. 들어가는 말

근대적 학문 방법론을 통한 한국 유학 연구는 20세기 이후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어 오고 있다.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珣를 비롯한 주요 성리학자들은 물론, 사상사적 측면에서나 정치사회사적 측면 등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유학자들에 대한 개별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면서 한국 유학 연구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별 유학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학파별 연구 성과¹⁾가 가시화되면서 학파별 연구가 정착되고 있으며, 四七論爭을 비롯한 주요 논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물론,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또한 학계에서 비중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 유학 연구를 한 단계 견인하는 연구 방향이자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유학 연구의 저변에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개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주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유학자 개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본적으로 家學을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 이외에 師承관계에 주목하면서 그 학문적 내용의 授受 내용을 확인하고, 동료 학자 및 선후배 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학문적 연대를 검토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학자 개인에 대한 연구를 넘어 학파 연구로 연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 간의 학문 수수 및 집단 간의 교유 내용을 관계적 측면에서 주목하고, 문인들 간의 횡적 연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려는 시도 등은 사회적 관

1) 한국사상사연구회에서 조선시대 학파를 체계적으로 저술한 『조선유학의 학파들』(예문서원, 1996)은 22개에 달하는 조선시대 학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학파 연구를 선도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학파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저술 이후 한국 유학에 대한 연구는 개별 학자를 넘어 학파별 연구로 한 걸음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계에 입각한 연구 방법이 한국 유학 연구에서 범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학자나 학파의 유학사상의 형성과 전개가 고립 분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정 사상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지든 아니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든 한 인물이나 학파의 사상 형성과 전개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인식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파악하는 것이다.²⁾ 학맥과 학파적 연계라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이러한 연구 방법은 최근 들어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사상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키워드로 하여 개별 학자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으며, 입체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개인의 사상적 입장을 분석하려는 성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³⁾

한국 유학 연구의 이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이미 ‘사회관계망(연결망)⁴⁾ 이론’과 이와 결부된 ‘관계망 분석기법’이 사회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방법은 현대에서 본격적으로 출현한 연결망 사회에 주목한 것이며, 개별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종래의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에서 전환하여 개체들 간의 관계성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⁵⁾ 그리고

2) 고영진은 이러한 입장을 계보 연구로 범칭하고, “인간, 집단, 사상, 심지어 역사 자체도 시간적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전제하고, 조선 유학의 계보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2012 참조.

3) 이러한 연구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태학사, 2009)을 들 수 있다.

4) 사회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연결망’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사회관계망’으로 대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결망 이론은 현재 사회과학분야는 물론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 등 학문분야 전반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5)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3, 13쪽 참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학 분야에서도 이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있다.⁶⁾

본고에서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사회관계망 이론 및 분석방법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한 한국 유학의 연구(방법)을 試論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전통적인 연구방법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개별적인 연구에서 이 방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 유학 연구에서 이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과 그 성과가 어떠한 수 있을가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최근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수집 연구」를 통해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유의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유의점이 있음을 밝힌다.

2. 관계망 이론과 한국학 연구 방법론

기본적으로 사회관계의 형태, 혹은 사회연계의 패턴으로서 사회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사회관계망 이론은 현대 사회가 더욱 분산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분산된 개인들 간의 관계망이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류학에서 친족망 분석을 위해 발전되어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이 이론과 분석 방법⁷⁾ 일정한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통해 관계망에 포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와 사

6) 차세영·임도빈, 「세종 조 중앙 정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연결망 분석 -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政策學會報』 20-4, 한국정책학회, 2011.

7)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의 기초 개념 - 구조적 권력과 연결망 중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8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141쪽.

회 구조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관계망 이론에서 전제되는 인간관은 관계적 인간관(relational concept of man)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전제되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수단을 계산하고 선택하는 경제학적인 인간형이거나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학적 인간형이었던데 비해, 관계망 이론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자신이 놓인 위치나 놓여 있는 관계망의 구조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존재이다.⁸⁾ 이에 따라 인간 행위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속성과 규범의 결과로 설명하기 보다는 구조화된 사회관계들이 개입한 결과로 이해한다.⁹⁾ 다시 말해 관계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관계망 속에서 개인은 일련의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이때의 관계망은 개인의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고 유지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개인들의 선택에 따라 형성된 관계망은 다시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관계망 속에서 개인은 관계의 구조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행위를 위한 기회도 제공받지만, 동시에 그것을 제한받는다라는 것이다.¹⁰⁾

사회관계망에서 관계를 맺는 단위인 노드(node), 즉 결점은 개별적인 인간 주체로 상정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결점이 개인을 넘어 개인들로 조직된 사회구성체, 즉 사회조직이나 사회체계, 나아가 국가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이외에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하에서 결점이 서로 작용하고 발현하는 관계성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¹¹⁾

관계망 이론은 이렇듯 결점, 즉 개인이나 집단은 개별적 속성이 아닌 관계적 속성을 대상으로 삼지만, 전적으로 속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

8)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3, 22~27쪽 참조.

9) 이철우·박상민, 「사회적 연결망의 연구동향과 공간적 함의」, 『사회과학』1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4~5쪽 참조.

10) 이철우·박상민, 위의 논문, 3~4쪽.

11)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의 기초 개념 - 구조적 권력과 연결망 중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8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143~144쪽.

장을 취한다.¹²⁾ 즉, 속성만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계성을 배제한 상태에도 속성만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사회 현상은 개인적 속성과 관계성이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이해로 귀결된다.¹³⁾ 이 지점에서 관계망 이론은 미시적 현상으로서 개인과 거시적인 사회적 사실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이론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관계망에 대한 분석이 미시와 거시를 개별적인 별개의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미시와 거시의 이중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 면에서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을 다른 면에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¹⁴⁾

관계망 이론에서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관계망 형태의 구조적 특이성에 주목하는 묘사적(descriptive) 접근법, 구조적 특이성을 발생시킨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설명적(explanatory) 접근법, 결점 사이의 연계성 자체에 관심을 두는 쌍방 관계(digraph) 접근법, 그리고 관계망 전체 구조 내에서 결점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려는 구조적 동위성(structural equivalence) 접근법 등으로 분류된다.¹⁵⁾ 이러한 접근법 및 분석 방법에 따른 그간의 연구에 대해 최근 사회학 일각에서는 관계망 분석 방법이 주로 결점이나 관계의 속성보다는 관계망 형태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 관계망 연구는 형태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점과 관계의 분포로 구성되는 그래프로서의 관계망 연구를 중

12)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3, 28~30쪽 참조.

13) 김용학에 따르면, 경제력이 큰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속성도 갖지만, 경제력 때문에 생기는 관계망의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계성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학, 앞의 책, 29~30쪽 참조.

14) 김용학, 앞의 책, 30~34쪽 참조.

15)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의 기초 개념 - 구조적 권력과 연결망 중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8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144쪽.

심에 두기 때문에 관계망의 생성, 변화, 소멸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 부족하고, 동일한 형태의 관계망이라고 하더라도 결점과 관계의 내용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 착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지적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속성과 관계성의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속성이 핵심적인 주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연구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¹⁷⁾

위와 같이 관계망 이론과 분석 방법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련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연구의 관심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경향성은 관계망 이론이 각 분과 학문에 있어 연구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¹⁸⁾ 한국학 분야에서도 관계망에 유의하여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 성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망 이론 및 분석에 입각한 연구 방법론은 앞으로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 한국학을 포함한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방법으로 더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분과학문에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한국학 분야에서 관계망 이론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연구는 사회학 등 관련 학문 분과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주요 텍스트에 대한 진전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 김우식 외,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결망』(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참조 (윤영태, 「사회 연결망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인간과 문화 연구』 18, 2011, 183쪽에서 재인용)

17) 윤영태, 「사회연결망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인간과 문화 연구』 18, 2011, 183쪽.

18) 관계망 이론에 따른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의 태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지닌 고유한 역동성은 무엇인지 등이다. 윤영태, 앞의 논문, 185쪽 참조.

이러한 기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시된 연구 성과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 연구 성과 중 사회관계망에 입각하여 진행된 연구물로는 「金宏弼의 정치네트워크와 小學契」를 거론할 수 있다.¹⁹⁾ 이 연구는 크게 보면 사림파와 훈구파의 이원적 대립 구도에 대한 Edward W. Wagner의 문제 제기와 Martina Deuchler의 견해, 그리고 국내 학자들의 도식적 이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 등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사림파와 훈구파는 고정되고 범주화된 집단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며, 더구나 경제적 지표나 지역성을 아우르는 정치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사림파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金宏弼(1454-1504)을 대상으로 그가 연결된 관계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립되었고, 정치적 관계망의 공통성은 무엇이고, 관계망에 속한 인물들의 경향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김굉필의 정치적 관계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망이 아니라 『소학』을 매개로 연결되었고, 이 관계망은 同門 受學成均館 儒生·師承執贊 弟子 계열에서 확인되며, 다양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사적이고 가변적이며 개방적인 契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김굉필의 관계망은 단순한 문인관계나 사승관계가 아니라 훈인·친구관계가 얹혀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학 계의 활동을 통해 점차 그의 관계망은 정치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학 분야의 연구에서 관계망 이론에 주목하는 것은 앞서 정리한 사회과학에서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 특히 이 연구가 주목한 것은 구미 학계에서 제기한 연결망 이론과 일본 및 중국에서 제시된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Christopher Ansell이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네트

19) 윤인숙, 「金宏弼의 정치네트워크와 小學契」, 『조선시대사학보』 59, 2011. 이하 내용은 이 논문의 내용을 관계망에 주목하여 정리한 것이며, 이 논문에는 네트워크로 기술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관계망으로 대응하여 기술하였다.

워크(관계망)와 공식적이고 비개인적인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하나의 개념으로 하여 상정한 ‘네트워크 제도주의’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그리고 조직 간의 상호 작용과 교환을 통해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제공한다는 점이 범주화되고 고정화된 정치세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 준다고 파악하였다.²⁰⁾ 아울러 市來津由彦의 『朱熹門人集團形成の研究』에서 朱熹의 문인집단이 서한을 통해 지역과 전국에 걸쳐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였는가를 고찰하고, 그것은 주희가 독서행위를 단순히 개인적인 지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 공적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기획하려는 의도였음을 밝힌 경험적 연구에 유의하였다.²¹⁾

3. 한국 유학 연구와 관계망 분석 방법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학 분야의 연구에서 관계망 분석 방법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관계망 이론에서 전제하는 인간관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인간 이해 방식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일찍부터 동아시아에서 전제된 인간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전제하는 인간형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속에 놓인 관계적 인간이었다. 인간이라는 글자가 사람(人) 사이(間)라는 것에서도 확연히 확인되듯이 동양에서의 개인은 끊임없이 관계의 연속선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동

20) Christopher Ansell, “Network Institutionalism”, in Rhodes Binder & Rockman b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75~77쪽. (윤인숙, 「金宏弼의 정치네트워크와 小學契」, 『조선시대사학보』 59, 2011. 40쪽에서 재인용.)

21) 市來津由彦, 『朱熹門人集團形成の研究』, 東京: 晶文社, 2002. (윤인숙, 앞의 논문, 40쪽에서 재인용.)

양의 대표적인 윤리 덕목 중 하나인 五倫도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전제로 그 관계에서 요청되는 도덕규범을 제시한 것이고, 쌍무적이고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망에 대한 사고는 일찍부터 동아시아의 전통 속에 일반화된 것이었다. 개인을 넘어 사회도 마찬가지였으며, 정치적 관계도 군주와 기층민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유학적 사고의 대체라는 점에서 더욱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하에서 한국 유학은 관계망 분석을 통해 구성될 다양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 방법의 적용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유학은 그 전개 과정에서 뚜렷하게 사승 관계를 통한 학문의 수수와 동일한 학파 내의 문인 및 타 학파 문인과의 교유 관계에 있는 학자들 간의 왕래를 통해 사상 체계가 정립되고 계승되며 확산되었다. 그 결과 학파의 형성이 본격화되는 16세기 이전부터 이미 학문적 관계, 즉 관계망에 대한 사고가 유학사상가들 내부에서 싹트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일련의 師友錄이나 門人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道學的 입장이 두드러졌던 15세기 중반 이후 金宗直(1431-1492)에 의해 『先公師友』와 『門人錄』이 편집되고, 金宏弼의 『師友門人錄』, 鄭汝昌(1450-1504)의 『師友門人錄』, 南孝溫(1454-1492)의 『師友名行錄』 등이 연이어 편찬된 것은²²⁾ 학문 및 사상의 종적인 수수 이외에 횡적인 연대 의식에 입각한 학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현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전통은 학문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인 道統 의식과 결부되면서 각 학파마다 특징적 면모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문인록 발간으로 이어졌으며, 일련의 문인록 발간이 이후에도 지속되어 20세기의 근현대 유학자들에게까지 계속되었다.²³⁾ 그만큼 조선 유학자들의 인식 속에는 학문 및 사상 형성과 지

22)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2012, 267~268쪽 참조.

23) 후술하겠지만, 문인록 발간이 보다 왕성하게 발간된 때는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였다. 유학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말 도학자들은 학파의 분화와 문호

속에 있어 사회관계망에 대한 의식이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유학 사상 연구에 있어 관계망을 통한 연구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조선 유학 내부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²⁴⁾

더욱이 조선시대 유학의 전개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특징적 면모 중 하나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여러 논쟁들이 논쟁 초기에는 개인 간의 논쟁으로 출발하였지만, 이후에 논쟁이 지속되면서 다른 학자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 그 결과, 특정한 논쟁점을 대상으로 학파 내 문인들 간의 논의가 지속되기도 하였고, 학문적 동질성에 기초한 학파의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학파 간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학맥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학자들 상호 간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학파 구도가 지역적으로 고착되기도 하고, 지역 간에 교차되는 양상도 드러났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지역 내부에서 학문적 입장 차이가 갈리면서 다양한 중첩된 학자의 지형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복합적인 관계망의 구도 하에서 조선 유학의 전개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유학사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관계망이 사상적 측면에서도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립에 따른 조선 유학의 지형도 변화 속에서 내적인 연결망을 확인하고, 나아가 유학의 도를 온전히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인록 발간에 유의하였다. 이 때 문인록에 담긴 내용은 성명파 본관 등 혈연적 관계망을 기본으로 지역, 관직, 나이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 이외에 입문 시기 등을 담았다. 그만큼 사회 관계망에 유의하여 문인록을 편집 발간한 것이다. 문인록의 구성에서도 학파의 宗匠을 중심으로 그의 사승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그 학문적 정통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교유 관계를 제시하여 학문적 교유 내용을 제시하였고, 문인에 대해서도 그 내용적 친밀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24) 관계망 이론은 현대 사회의 네트워크화에 주목하여 발전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네트워크가 발달한 사회였고, 특히 조선 유학자들의 지형이 네트워크로 조직되고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관계망을 통한 연구방법론이 적실하게 적용될 기반이 전통사회의 유림 내부에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유학 연구에 관계망 연구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사회관계망 속에서 학자 개인의 속성은 학파 내부에서 동질적인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학파 내의 문인들과 학문적 지향과 내용에서 차별화되는 양상도 드러내었다. 흔히 특정 학파의 분화와 문호의 분립으로 특징되는 조선 후기 유학의 학파별 양상은 관계망 분석에서 관계망의 생성과 변화, 지속과 소멸 등 관계망의 동태적인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선 유학의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유학사상의 전개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파의 양상은 관계망의 연구 방법을 통해 더욱 명확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며, 이를 통해 조선 유학의 지형이 보다 분명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유학은 개인 학자들의 사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의 행동 양식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정치적 입장의 근거가 되었다.²⁵⁾ 그리고 사회제도와 사회 윤리 등 조선 사회 체제 전반에 투영되어 정치 및 사회적 측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따라서 유학 사상에 대한 검토는 사상(사)의 측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을 통해 정치 및 사회 현실과 상호 연결되어 파악될 때 보다 명확한 내용적 함의가 드러나게 된다. 학문 사상과 정치와의 연관에 대한 주목은 그간 학계에서 제기된 내용이며, 이것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연구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 유학은 관계망 연구 방법을 적용할 토대를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관계망 분석을 적용한 접근이 이미 시도되고 있다. 명시적으로 관계망이라는 표제어를 드러낸 연구 성과들이 최근에야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인식 속에

25) 정만조, 『조선중기 유학의 계보와 봉당정치의 전개 (I)』, 『조선시대사학보』 17, 조선시대사학회, 2001. (고영진, 앞의 논문, 292쪽에서 재인용.) 고영진은 이 논문이 유학 계보의 파악과 그 계보가 봉당의 인적 구성에 어떻게 연관되며 봉당정치의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관계망 연구와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계망에 대한 사고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으며, 일련의 저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어 왔다. 따라서 관계망 분석 방법은 어떤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인식과 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충분한 자료를 산출하여 연구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적 학문 방법론에 따른 기왕의 연구들에서 보이는 혈연·학연·지연 등에 대한 검토 및 교유 양상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상의 형성 및 전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연구 등은 대체적으로 관계망 분석 방법론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승 관계에 입각하여 학통과 학맥을 검토하고, 학파 내의 교유 관계에 주목하여 사상적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사상 내용의 동이점을 파악해 온 일련의 연구들은 비록 사회과학에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그 목적이나 체계는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망 분석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 연구에서 계보학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고, 학파와 학맥을 지역과 결부시켜 검토한 연구물, 그리고 동아시아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일련의 사상을 구체화한 연구 등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관계망 연구방법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학문 내용의 분석 이외에 조선 유학의 지형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한 연구는 연구 방법론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접근한 방법이라 하겠다.²⁶⁾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관계망 분석에 입각한 연구물 가운데에는 앞서 거론한 문인록이나 연원록 류의 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검증하는 연구물도 발표되었다. 문인록에 수록된 문인 학자들과 학파의 宗匠 간의 관계를 서신 왕래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문인록 자료의 객관성을 검토하는 한

26) 고영진은 이러한 연구 경향을 조선 유학의 계보 연구로 정리하고, 개별 연구를 통한 계보 연구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2012 참조.

편, 특정학과 내 문인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²⁷⁾ 이 밖에도 학과 형성의 기준이 과연 오로지 학문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하에서 학문적 요소 이외에 수학 관계, 사후 제자들의 동향, 정치적 영향력, 타 학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특정학과에 적용하는 연구도 제출되었다.²⁸⁾ 이렇듯 관계망 분석에 입각한 연구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한국 유학 연구에서 큰 줄기를 이루어 왔고, 보다 긴밀하게 연구 방법론으로서 검토되고 적용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관계망 연구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 방법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맥락이 닿아 있는 연구방법론으로 전자문화지도 구축사업 및 이와 연관된 연구 방법론을 들 수 있다. 10여 년 전부터 조선시대 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작업과 더불어 진행된 이 작업은²⁹⁾ 급속하게 진전되는 디지털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제적 연대를 기초로 조선시대의 문화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간·공간·주제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텍스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매체 자료를 연구자원으로 확보하여 입체적인 사고와 해석을 추구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것이었다. 다차원 구조를

27)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김종석의 『『도산급문제현록』과 퇴계 학통 제자의 범위』, 『퇴계문하의 인물과 사상』(예문서원, 1999)이다. 이 연구는 사제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서신 왕래의 횟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6통 이상의 서신 왕래가 있는 문인만을 학통 제자로 분류하였다. 문집의 편집이 주고받은 서신을 총망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사제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28) 고영진은 이러한 사례로 정재훈의 『조선 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태학사, 2005), 『조선시대의 학과와 사상』(신구문화사, 2008)을 들고 있다. 고영진, 앞의 논문 참조.

29)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구축사업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국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규 외,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와 문화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을 참고할 것.

가지는 전자문화지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문화에 대한 입체적 연구를 목표로 한 이 연구는 유형별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주제 축을 통해 내용적 요소를 구성하고, 시간 축을 통해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생성, 변화, 소멸하는가를 역동적으로 파악하며, 공간 축을 통해 실체의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문화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거시적 안목에서 새로운 방법론의 체계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한 문화 현상을 입체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으로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문화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론 상 관계망 분석 방법과 닮아있다고 하겠다. 특히 문헌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그 관계를 현시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분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이에 따른 연구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한 조선시대 학맥도 구축 사업도 관계망 연구방법과 맥이 닿아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맥을 중심으로 조선 유학이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 중기 이후 유학자들을 학맥을 기초로 연계 관계를 집성한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학맥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는 전자적인 작업이었다. 비록 학맥도에 포함되는 학자들이 제한적이어서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맥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에 입각하여 조선 유학을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계망을 통한 한국 유학 연구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³⁰⁾

위와 같이 한국 유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에 따라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관계망 이론 및 분석 방법의 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다. 사회과학에서 제시하는 관계망 분석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지만 조선 유학의 특징적 면모와 견주어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구축한 유교넷(<http://www.ugyo.net/>)을 참조할 것.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구나 지난 기간 동안 한국 유학 연구자들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관계망에 유의하여 연구와 자료 축적을 진행해 왔다는 점도 이러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일정 정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유학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복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입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그간의 정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선 유학이 단일한 관계망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망의 그물 속에서 사상이 형성되고 전개되었으며, 변화와 굴절, 그리고 약화와 소멸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을 체계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인식하고,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현상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해 긴밀하게 접목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도 보였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관계망 분석 기법은 한국 유학 연구에 유용하리라 예상된다.

4.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의 체계화 및 분석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유학사상 연구에 있어 사회관계망 분석 기법은 조선 시대를 포함한 우리의 사상 전개에서 유학사상이 기능한 전모를 밝히고 사상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20세기에 걸친 호남과 호서 지역의 근현대 유학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에서는 사회관계망 분석이라는 연구방법론에 입각하

여 2012년부터 10년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수집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1단계(2012~2015)에서 田愚(1841-1922)와 그의 문인에 대한 사회관계망 분석을 위해 개인 문집을 비롯하여 인명부 및 단체 문서 등 관련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단계(2015~2018)에는 奇正鎭(1798-1879)과 그의 손자인 奇宇萬(1846-1916)을 중심으로 한 蘆沙學派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제3단계(2018~2022)에는 李恒老(1792~1868), 宋秉璿(1836-1905), 李震相(1818-1886)을 연원으로 활동한 호서·호남 지역의 유학자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가칭)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 연구사업의 성과³¹⁾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 자원의 체계화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문헌자료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관련 인물들의 문집과 문인록(『華嶋淵源錄』, 『蘆沙先生淵源錄』, 『溪山淵源錄』 등) 및 유교연원록이 포함되며, 유림관련 단체 및 조직의 문헌인 『儒案』 및 『鄉案』이 포함된다. 기존의 근현대 유학사상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말 및 일제 강점기의 유교 유사단체의 자료인 『大東斯文會報』 등과 이 시기의 신문과 잡지의 유학 관련 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까지 조사 및 자료 수집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이 지역의 문중 자료도 다수 확보할 예정이다. 근현대 이 지역 유

31) 21세기 들어 호남지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연구사업, 예를 들어 「20세기 근·현대 호남 문집 자료 조사 및 정리사업」(연구책임자 김대현, 2002~2005), 「근현대 대전·충남지역 한학가의 학맥과 문헌조사」(연구책임자 이향배, 2002~2004), 「호남지역 주요 문중·문헌 조사 및 연구사업」(연구책임자 김대현, 2009~2012),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책임연구원 김대현, 2010~2011) 등을 적시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획득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학자들의 학통을 계승하여 현재 활동 중인 학자들의 구술도 자료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입체적인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로 도출될 「근현대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국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회관계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이며,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등 이전에 구축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술 규칙을 적용하면서 사회관계망 확인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추가 적용하여 시스템의 확장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성명(한글/한자)·자·호·시·호·생몰년·출생지·거주지·분묘지·사승·활동지역·저서 등 기본 정보 이외에 특정 인물과 관계된 관계 정보로 관계 유형, 관계형성자, 그리고 관계형성자 사이의 관계 기술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특히 사회관계망 확인이 가능한 자료의 출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진전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료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시스템이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도는 근현대 유학 및 유학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이 시기의 유학은 전시대에 비해 지역과 연계한 학파의 분화 및 문호 분립이 뚜렷하다. 18세기 이후 京鄕分離 현상이 가시화된 이후, 19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嶺南學界는 물론이고 畿湖學界는 다양한 학파의 분화와 문호 분립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전 시기까지 상대적으로 학파의 형성이나 사상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호남 지역의 경우, 奇正鎭을 중심으로 학파의 형성이 뚜렷해졌으며, 기호 낙론의 학통을 계승한 田愚의 강학활동이 충청 지역을 거쳐 호남을 근거지로 확립되면서 호남 지역은 한말 유학계의 지형에서 중심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李恒老와 宋秉瑨 계열 학자들의 강학 활동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학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지역을 매개로 한 학파의 분화가 뚜렷해지면서 이전 시기의 주요 논쟁에 대한 계승과 분화의 양태 또한 더욱 확립되었다. 이전의 성리학설에 대한 계승의 면모가 각 학파마다 확실히 제시되었고,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술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특정 학파 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파를 넘나들면서 학파 간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학술 논쟁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 논리와 맞물리면서 그 논쟁의 변화 진폭이 상당하였다.

더구나 특정한 학파가 특정 지역에서 영향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학문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학파 간 대립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학파의 분화라는 학계 지형의 변화는 학파 간, 유학자 간의 교유 양태에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정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학자 및 학파 간의 이합집산이 뚜렷해지고, 학파 간 갈등과 연대가 교차하였으며, 같은 학파 내에서도 학설과 현실 대응을 두고 갈등과 연대가 교차하는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울러 특정학파의 종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계승자들을 통해 그 학문적 입장이 계승되면서 문인집단의 지속 및 분화가 이어졌고, 이 문인집단은 특정지역 내에 자리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더하여 1900년대 초반을 고비로 일제 강점기로 이행되면서 당대 유학자들은 전대 성리학에서 미해결된 주요 주제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면서도 현실 대응을 두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의 호락논쟁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心에 대한 理氣論的 해석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었고, 栗谷 性理說에 대한 계승의 편차가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쟁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시대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당대 유학자들은 항일이라는 민족적 사명을 두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방법론에 있

어 대응의 모습이 갈리기도 하였으며, 약화되어 가는 유학의 영향력을 두고 유럽의 갈등과 분화가 촉진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를 두고 엇갈리는 처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식인 집단으로서 유럽은 엇갈리는 성격의 변화를 드러냈다.

이상과 같이 근현대 유학 및 유학자들은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변화된 양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의 연구는 흔히 학파의 宗匠으로 불리는 특정한 학자에 집중된 양상을 보여 왔다. 학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접근도 없지 않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문인의 구성이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근현대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들의 삶의 시공간을 연결하여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당시 유학자들의 활동 영역, 관계형성의 내용 및 관계형성자들의 상호 관계, 그리고 관계망 내의 주요 교류 내용을 정량적인 측면 이외에 세부 내용의 측면까지 정리하면, 학파의 기본적인 구도를 이전과 다르게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학파 내의 관계 형성자들 간의 상호 관계망을 구축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기존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학파의 전모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³²⁾

유학자 및 학파 연구 등 한국 유학사상 연구에는 아직 적용된 바는 없지만, 선행 사회과학적인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개념들을 도입하고, 관계망 연구 방법론을 수용하여 적용하면 이전 연구와 차별화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유학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32) 행정학에서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되는 개념은 결속성, 중앙성, 구조적 등위성, 결속 집단 등이다. 이 개념을 동원하여 조선 초기 중앙행정기구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연구 성과로는 차세영·임도빈, 「세종 조 중앙 정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연결망 분석 -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를 중심으로」(『韓國政策學會報』20-4, 한국정책학회, 2011)을 들 수 있다. 후술하는 내용은 이 논문에 의거하여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연구를 적용한 예이다.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사회과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인 ‘중앙성(Centrality)’을 관계망 시스템 속에서 도출하면 특정 학자가 학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다. 중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연결 정도(degree), 인접 중앙성(Closeness),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위세 중앙성(Eigen value) 등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의 방향에 따라 그 내용을 적용하면 여러 층위에서 유학자 개인의 위상 및 학과의 위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³³⁾

굳이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진일보한 한국 유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과 문인에 대한 연구가 막연하게 학통을 계승했다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서 벗어나 이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艮齋私稿』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에 따르면, 전우를 중심으로 서한을 주고받은 인물, 시기, 양자 간의 관계, 서한의 내용 분류, 서한의 핵심 내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시스템 내부에 적용되면 전우와 문인 및 특정 유학자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적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향후 연구의 초점이 개인은 물론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 확장될 수 있는 주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더하여 기본 정보로 제공되는 활동 지역과 연계하면 입체적인 유학의 지형과 내용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蘆沙集』 重刊과 맞물려 서부 경남지역의 율곡계열 학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기호학계 전체로 논란이 확산된 「猥筆」 및 「納涼私議」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다고 할 때,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

33) 차세영·임도빈, 앞의 논문, 16쪽 참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방법론 탐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기부터 이에 대한 예비적이지만 포괄적인 선행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되어 활용되면 1차적으로 이 사안에 관심을 두었던 학자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재학과 및 연재학과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각 학과 내부에서 이 사안을 두고 오고간 논의의 형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과의 면모 및 특정 학자들의 비중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서부 경남지역에서 불거진 논란이 어떻게 지역적으로 확산되었는지, 시대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등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연구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근대 이행기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근대 지식인들의 변모 양상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연구에 대한 새로운 자료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크며,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 남는 문제와 과제

사회관계망 연구는 사회과학분야 내부에서 그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문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그리고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유학사상 연구에서는 이제야 명시적으로 사회관계망에 주목한 개별 연구가 하나둘씩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한적이지만 근현대 유학 및 유학자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유학 연구에 사회관계망 이론 및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의미

34) 각주 15) 관련 내용 참조.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제 분야에서 사회관계망에 입각한 연구 성과 및 한계에 유의하면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체계화는 물론, 이를 위한 시스템, 즉 전자정보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유학연구 방법론에 적용되어 왔던 관계망에 유의한 연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유학사상을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현대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은 유용한 틀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연구를 도출하는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전 작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우선 사회과학분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유의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이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유용하게 다가서기 위한 자료의 충실성, 풍부성, 체계성, 정확성 등을 더욱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유학연구자 일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 유학 연구자들의 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그들로부터 여러 제안을 수용하여 실 작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사회관계망 이론과 분석 방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관계망 이론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부족한 한국 유학연구자 및 과제 참여자들에게 관계망 이론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하며, 사회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유학 연구가 학제간 융합연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며, 한국 유학 연구의 질적 제고 및 연구 분야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근현대 유학자들의 사회관계망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학 연구에서 볼 때, 이 방향에 대

해서는 공감대가 있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과 학파 등 집단의 관계망을 복원하고, 관계망 하에서 유학사상 뿐만 아니라 지역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의 여러 층위가 확인되는 기본 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 자료는 확장적 기반을 가지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반에서 유학자 개인은 물론이고 학파로서의 학문적 집단,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시대정신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2012.
-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의 기초 개념 - 구조적 권력과 연결망 중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8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3.
- 김우식, 「사회연결망의 구성과 변동에 대한 고전사회이론의 기여」, 『담론 201』 15(3), 2012.
- 김홍규 외,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와 문화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윤영태, 「사회연결망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인간과 문화 연구』 18, 2011.
- 윤인숙, 「金宏弼의 정치네트워크와 小學契」, 『조선시대사학보』 59, 2011.
- 이철우·박상민, 「사회적 연결망의 연구동향과 공간적 함의」, 『사회과학』 1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태학사, 2009.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근현대유학연구단, 「근현대 유학자 사회 관계망 분석 및 자료수집 연구」(2012년도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연구 계획서), 2012.
- 차세영·임도빈, 「세종 조 중앙 정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연결망 분석 -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政策學會報』 20-4, 한국정책학회, 2011.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Abstract]

Social Network Analysis and Research of Korean Confucianism

- focusing on profiling of social networking among
Confucians in modern Korea

Park, Hak Rae(Kunsan National University)

Social network theory and its analysis is one of the promising methodologies that contemporary researchers nowadays pay attention to in studying Korean Confucianism. This research methodology, which has been already generalized in social science, is based upon relational concept of man. In the methodology, an individual makes relationship with others within social network. The social network can be reproduced and maintained by behaviors of individuals. Moreover, the network formed by choices of individuals can influence their behaviors. Based upon this view, in a word, this method analyses a social structure as well as properties of individuals. This research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to Korean Confucianism at a beginning stage. The reason is because we have no systematic analyses and approaches to the method by lacking of sufficient data.

This article examines social network theory and its analysis in relation to an established study on Korean Confucianism. By paying attention to individual researches taking the methodology, furthermore, I seek for applicability of this method to Korean Confucianism and delve into the result of it. The premise of my examination has basically a starting point that any scholars or schools in Korean Confucianism had never formed themselves independently. No matter how either an amicable or hostile attitude toward certain thought, formation of specific figures or schools is usually wrought at interactions not only between individuals but also between groups. Thus, I am convinced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method makes sense in analyzing social network of modern Korean Confucians.

Key Word : Studies on Korean Confucianism, Social Network theory & Analysis, Research Methodology

■ 논문접수일 : 2013년 5월 14일, 심사완료일 : 6월 23일, 게재확정일 : 6월 24일